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1.1

미 증시, 저가 매수 및 연말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김석환 seokhwan.kim@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수급 개선

•미 증시는 달러 강세와 높은 국채수익률 수준에도 불구하고 10월 낙폭 확대에 따른 저가 매수, 월말 윈도우 드레싱 등 수급 요인과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이 날 발표된 미국의 주택, 소비자신뢰지수 및 주간 소매판매 동향은 시장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며 달러 강세와 높은 국채 수익률 수준을 지지. 지난 주 3월 은행 위기 이후 최고치인 23 포인트까지 상승했던 변동성 지수(VIX)는 18 포인트 초반까지 급락. 달러/엔 환율은 BOJ 통화정책이후 약세로 전환하며 1990년 5월 이후 무려 3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 기록. (다우 +0.38%, 나스닥 +0.48%, S&P500 +0.58%, 러셀2000 +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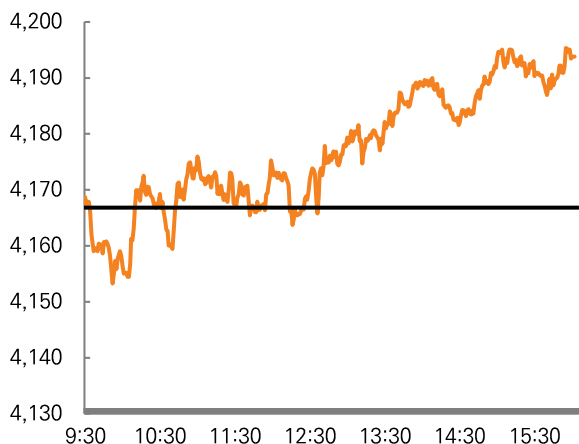
특징 종목: 부동산 강세

•S&P 500의 전 섹터 상승. 특히 부동산(+2.03%), 금융(+1.10%) 등이 크게 상승하며 상승을 견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속된 가운데, 핀터레스트(+19.04%)와 아리스타 네트워크(+14.03%)는 시장 기대를 상회한 3분기 실적 발표 후 급등. 특히, 핀터레스트는 일부 광고주들의 지출 축소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향후 광고 수익 악화에 대한 우려 낮춰. 울프스피드(+22.08%)는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하고 향후 회사의 주력 제품인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고 말하며 큰 폭 상승 기록. 투자이견 상향에 따른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눈에 띄었는데, 추이(+4.04%)와 소파이(+8.79%)는 모건 스텐리가, 애스버리 오토모티브(+2.85%)는 JP모건이 각각 투자이견 상향.

한국 증시 전망: 수출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1.79%, MSCI 신흥 지수 ETF는 0.5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50.56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7% 상승. KOSPI는 0.2~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최근 국내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 강화와 주력 업종의 부진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3개월 연속 하락 기록. 특히, 코스닥 지수는 9월 -9.4%, 10월 -12.5%를 기록하며 2001년 닷컴버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 기록. 단순히 수급 개선으로 인한 '일시적 반등' 보다는 체질 개선에 가까운 펀더멘탈 반등이 필요한 상황. 그러나 당장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도 크지 않아. 최근 한 달 동안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3.4%, 4.4%씩 하향 조정. 무엇보다 수출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금일 10월 수출입 동향 나올 예정. 기저효과 보다는 내용의 양질을 잘 살필 필요 있어.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277.99	-1.41	상해종합	3,018.77	-0.09
KOSDAQ	736.10	-2.78	홍콩항셱	17,112.48	-1.69
DOW	33,052.87	+0.38	인도센섹스	63,874.93	-0.37
NASDAQ	12,851.24	+0.48	유로스톡스 50	4,061.12	+0.81
S&P 500	4,193.80	+0.65	영국	7,321.72	-0.08
캐나다	18,873.47	+0.09	독일	14,810.34	+0.64
일본	30,858.85	+0.53	프랑스	6,885.65	+0.89

변화 요인

저가매수, 연말밸리 기대

미 증시는 달러 강세와 높은 국채수익률 수준에도 불구하고 10월 낙폭 확대에 따른 저가 매수, 월말 윈도우 드레싱 등 수급 요인과 연말 밸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이 날 발표된 미국의 주택, 소비자신뢰지수 및 주간 소매판매 동향은 시장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며 달러 강세와 높은 국채 수익률 수준을 지지. 지난 주 3월 은행 위기 이후 최고치인 23 포인트까지 상승했던 변동성 지수(VIX)는 18 포인트 초반까지 급락. 달러/엔 환율은 BOJ 통화정책이후 약세로 전환하며 1990년 5월 이후 무려 3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 기록.

저가매수, 연말밸리 기대

S&P 500 지수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이는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연중 고점을 기록했던 7월 말 이후, 조정폭이 10%를 상회하며 ‘기술적 조정’에 진입했다는 인식 확산. 특히, 주요 기술적 지표들의 약세 징후들은 투자 심리 위축을 불러와. 그러나 최근 3개월 동안의 증시 조정으로 인해 ① 높아진 밸류에이션 매력과 ② 연말 밸리에 대한 기대는 월말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Window dressing)과 저가 매수 등 수급 유입의 동기를 높여.

실제 S&P 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P/E는 19.3배로 연중 고점이었던 21.3배에서 크게 하락. 지난 27일에는 과거* 1991년 1월~현재 평균 수준인 18.6배에 근접한 18.9배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또한 연말 밸리에 대한 기대도 한 몫. 칼슨 연구소(Carlson institute)에 따르면 1952년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던 경우는 딱 5번뿐인데, 그 중 4번은 마지막 2개월(11월과 12월)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4.5%에 달했다는 것. 또한 S&P 500 지수의 과거 계절성을 살펴보더라도 연말 증시의 평균 수익률은 매우 양호했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불문율’이 월말 매수의 강력한 동기가 됐을 것으로 예상. 실제 금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과 높은 국채수익률 수준은 증시의 하방을 키우는 데 충분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점은 앞서 언급한 기대요인에 의한 수급 유입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

Eco 리뷰: 주택가격, 소비자신뢰지수 예상 상회, 고용비용 상승

미국의 주택가격이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 기록. 지난 8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지난 8월 전년대비 2.2% 상승해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 전월대비로는 7개월 연속 상승하며 미국 주택시장의 타이트한 수급 여건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 특히,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한 수요 둔화보다는 판매용 주택 부족이라는 ‘공급우려’가 더 큰 상황으로 당분간 현재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전망. 이는 물가의 주요 항목인 ‘임대료’의 하방 경직성이 제한적임을 시사. 결국 (시차를 두고) 추세적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주거비 물가 하락세가 완만해질 수 있음을 의미. 또한 연방주택금융기관(FHFA)에서 발표한 8월 주택가격 역시 전월대비 0.6% 상승하며 2022년 8월(-0.3%)이후 12개월 연속 상승세 기록.

컨퍼런스보드에서 발표한 10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 수정치 104.3에서 둔화한 102.6을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치(100.5)는 상회. 3분기 고용비용지수(ECI)는 전분기(1.0%) 대비 소폭 상승한 1.1%를 기록. 반면, 10월 델러스 연은 서비스업 지수는 전월 -8.6보다 크게 약화한 -18.2를 기록하였고, 시카고 지역 10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4개월 연속 위축된 44.0을 기록하며 전월(44.1) 및 시장 예상(45.0)을 모두 하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부동산 섹터 강세

S&P 500의 전 섹터 상승. 특히 부동산(+2.03%), 금융(+1.10%) 등이 크게 상승하며 상승을 견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속된 가운데, 핀터레스트(+19.04%)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14.03%)는 시장 기대를 상회한 3분기 실적 발표 후 급등. 특히, 핀터레스트는 일부 광고주들의 지출 축소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향후 광고 수익 악화에 대한 우려 낮춰. 울프스피드(+22.08%)는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하고 향후 회사의 주력 제품인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고 말하며 큰 폭 상승 기록. 투자의견 상향에 따른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눈에 띄었는데, 추이(+4.04%)와 소파이(+8.79%)는 모건 스탠리가, 애스버리 오토모티브(+2.85%)는 JP모건이 각각 투자의견 상향.

반면, 캐터필라(-6.65%)는 3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4분기 가이드언스에 대해 시장 예상 대비 ‘보수적’으로 발표하며 하락. 회사 주가는 6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제트블루(-10.48%)는 예상보다 낮은 3분기 실적과 4분기 전망을 내놓으며 급락. 회사 주가는 거의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제트블루의 저가 항공사인 스피릿항공(-12.10%) 역시 동반 약세. VF Corp.(-13.96%)은 이전에 발표한 연간 매출과 이익 가이드언스를 철회하고 배당금을 삭감하겠다고 발표. 일일 하락폭으로는 1987년 10월 이후 최악의 날을 기록. 사렙타 테라퓨틱스(-37.47%)는 개발 중인 유전자치료제의 임상 결과가 유의미할 정도가 아니라고 발표하자 급락. 유전자치료제 제조사인 카탈렌트(-13.85%) 역시 이 소식으로 급락.

상품 및
FX시장 동향

유가↓, 천연가스↑

국제 유가는 원유 생산 및 공급 증가와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다소 완화되며 지난 8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8월 미국의 월간 원유 생산량은 1,305만 배럴로 증가했다고 밝혀. 이는 미 에너지부(DOE)에서 밝힌 1320만 배럴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고수준임을 다시 확인. 또한 시장 조사에 따르면 OPEC 산유국들의 10월 원유 생산량은 전월대비 하루 18만배럴 증가한 2,790만 배럴로 추정. 이는 원유수요 둔화와 함께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함을 나타내며,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방 압력을 키워. 10월에만 WTI는 9%, 브렌트유는 9.2% 하락. 국제 금 가격 역시 전일대비 하락하며 2천 달러 하회.

일본 엔화는 달러대비 약세를 기록하며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기록.

한국
주식시장 전망

10월 수출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1.79%, MSCI 신흥 지수 ETF는 0.5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50.56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7% 상승. KOSPI는 0.2~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최근 국내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 강화와 주력 업종의 부진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3개월 연속 하락 기록. 특히, 코스닥 지수는 9월 -9.4%, 10월 -12.5%를 기록하며 2001년 닷컴버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 기록. 단순히 수급 개선으로 인한 ‘일시적 반등’ 보다는 체질 개선에 가까운 펀더멘털 반등이 필요한 상황. 그러나 당장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도 크지 않아. 최근 한 달 동안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3.4%,



4.4%씩 하향 조정. 무엇보다 수출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금일 10월 수출입 동향 나올 예정. 기저효과 보다는 내용의 양질을 잘 살필 필요 있어.

천연가스 상승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27	대형 가치주 ETF (IVE)	+0.90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88
소매업체 ETF (XLY)	+0.76	소형 가치주 ETF (IWN)	+0.76
온라인소매 ETF (EBIZ)	+0.71	대형 성장주 ETF (VUG)	+0.55
미국 인프라 ETF (PAVE)	+0.84	중형 성장주 ETF (IWP)	+0.80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1.05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0.96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08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34	미국 국채 ETF (IEF)	-0.21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65	하이일드 ETF (JNK)	+0.33
바이오섹터 ETF (IBB)	+0.58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1.07	물가연동채 ETF (TIP)	-0.25
반도체 ETF (SMH)	+0.7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14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부동산	207.55	+2.03	+0.75	-2.93
금융	536.84	+0.94	+0.23	-2.77
유틸리티	302.87	+0.86	+1.05	+1.23
산업재	832.11	+0.77	-0.62	-2.97
경기소비재	1,207.03	+0.71	-0.36	-4.51
헬스케어	1,451.16	+0.63	-2.40	-3.33
IT	2,903.54	+0.56	-1.07	-0.07
소재	478.64	+0.45	+0.94	-3.22
필수소비재	717.39	+0.37	+0.24	-1.37
에너지	652.01	+0.22	-2.72	-6.08
커뮤니케이션	217.76	+0.18	-6.17	-2.00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81.02	-1.15	-2.84	Dollar Index	106.743	+0.59	+0.45
브렌트유	85.02	-1.10	-2.02	EUR/USD	1.0575	-0.38	-0.14
천연가스	3.58	+7.52	+21.31	USD/JPY	151.71	+1.75	+1.20
금	1,994.30	-0.65	+0.33	GBP/USD	1.2148	-0.18	-0.10
은	22.95	-1.86	-0.67	USD/CHF	0.9104	+0.93	+1.93
알루미늄	2,251.50	-0.66	+2.76	AUD/USD	0.6337	-0.58	-0.28
전기동	8,110.50	-0.37	+0.73	USD/CAD	1.3875	+0.35	+0.98
아연	2,429.50	-1.46	-0.53	USD/RUB	93.3938	+0.79	-0.23
옥수수	478.75	+0.16	-1.03	USD/BRL	5.0381	-0.13	+0.92
밀	556.25	-1.41	-3.88	USD/CNH	7.3424	+0.23	+0.38
대두	1,310.50	+0.33	-0.23	USD/KRW	1,350.50	-0.03	+0.55
커피	167.30	+5.15	-0.51	USD/KRW NDF1M	1,350.56	+0.45	+0.63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4.929	+3.44	+10.57	스페인	3.883	-1.10	-5.50
한국	4.335	+3.00	+7.50	포르투갈	3.525	0.00	-2.40
일본	0.947	+5.50	+9.60	그리스	4.178	+3.20	-7.80

독일	2.806	-1.60	-2.20	이탈리아	4.726	-1.20	-10.10
<hr/>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